

2014년 거시경제 전망

요약

2014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부진 완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와 소득 및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은 내수 회복으로, 장기추세성장률에 근접한 3.7%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미국 출구전략의 여파, 중국 성장둔화, 일본의 소비세 인상 여파 등 대외 위험요인과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전체적으로 하방 위험요인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상·하반기 비슷한 성장추이가 이어질 전망

민간소비는 수출 회복에 힘입은 소득 상승, 유가 안정과 환율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3%대 초반의 증가가 예상

설비투자는 수출회복과 불확실성 완화로 IT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회복 추이를 보이며 연간 5%대 중반의 증가가 예상, 건설투자는 공공 인프라 예산 축소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수출은 세계경제 부진 완화로 전년보다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연간 6.7%의 증가를 보일 전망

- 수입은 수출 및 내수 회복에 따라 9% 내외의 증가를 예상
-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감소한 33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1. 국내경기 상황 판단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

국내 실물경기는 내외수 모두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중임.

- 실질GDP 성장률은 작년 3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나마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

* GDP(전기비, %) : (2013.1Q) 0.8 → (2Q) 1.1 → (3Q) 1.1

* GDP(전년동기비, %) : (2013.1Q) 1.5 → (2Q) 2.3 → (3Q) 3.3

* GD(전년동기비, %) : (2013.1Q) 3.6 → (2Q) 5.0 → (3Q) 4.2

- 수출은 금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이

* 통관기준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 (2013.1Q) 0.4 → (2Q) 0.8 → (3Q)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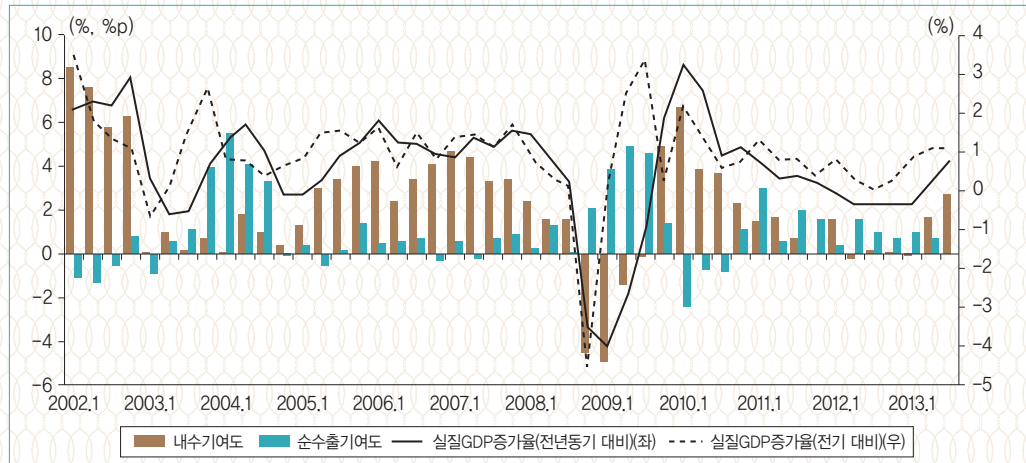
내수는 실질구매력 향상에 따른 민간소비가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임.

* 민간소비(전년동기비, %) : (2013.1Q) 1.5 → (2Q) 1.8 → (3Q) 2.2

* 설비투자(전년동기비, %) : (2013.1Q) -11.9 → (2Q) -4.6 → (3Q) 1.8

* 건설투자(전년동기비, %) : (2013.1Q) 2.4 → (2Q) 7.2 → (3Q) 8.0

그림 1 | GDP 및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산업생산은 아직 부진한 모습

산업생산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부진한 편이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 9월 산업생산 부진은 자동차산업 노사분쟁에 따른 일시적 요인과 추석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전산업생산(전년동기비) : (2013.1Q) 0.2 → (2Q) 1.7 → (3Q) 1.1

* 광공업생산(전년동기비) : (2013.1Q) -1.7 → (2Q) -0.7 → (3Q)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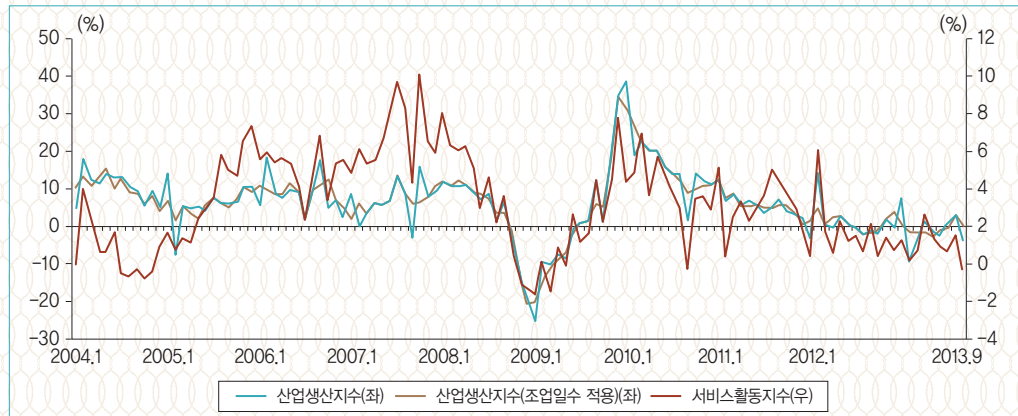
* 서비스생산(전년동기비) : (2013.1Q) 0.8 → (2Q) 1.7 → (3Q) 0.7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나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도는 아직 경기부진을 가리키고 있으나, 선행지수는 상승세를 시현 중임.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2013.6월) 99.0 → (7월) 98.9 → (8월) 99.1 → (9월) 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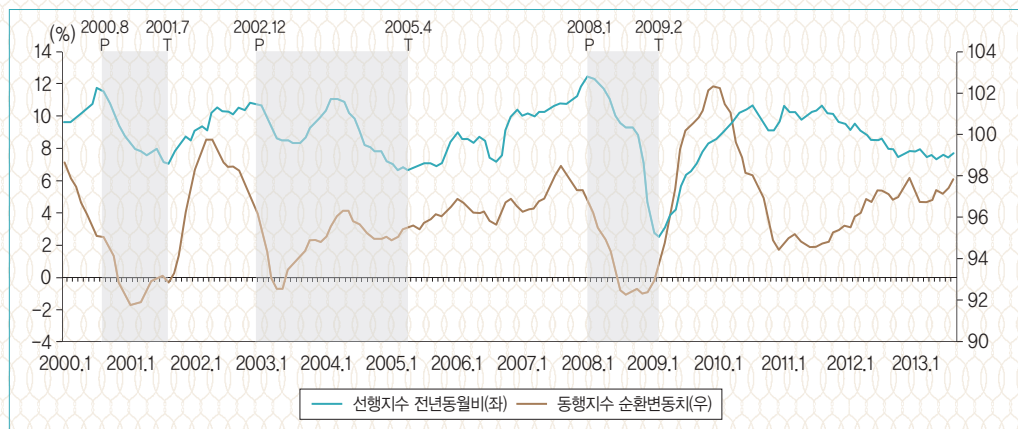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2013.6월) 100.5 → (7월) 100.9 → (8월) 101.2 → (9월) 101.0

그림 2 | 산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활동지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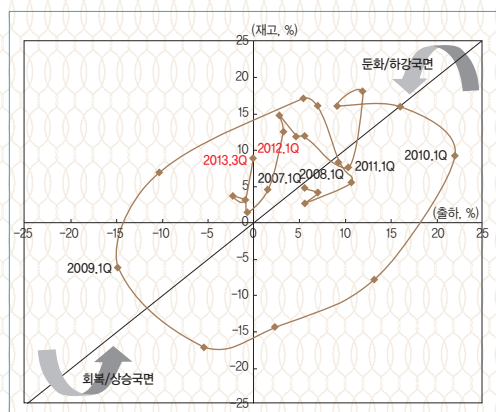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3 | 경기종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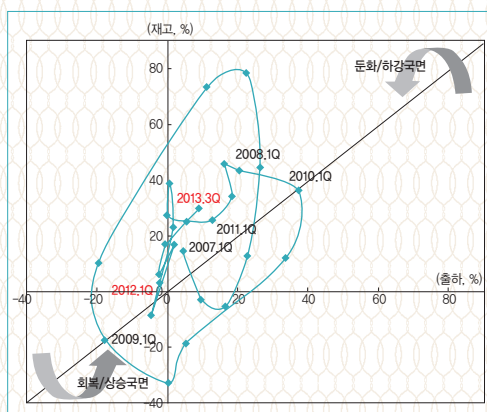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4 |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자료 : 통계청.

그림 5 |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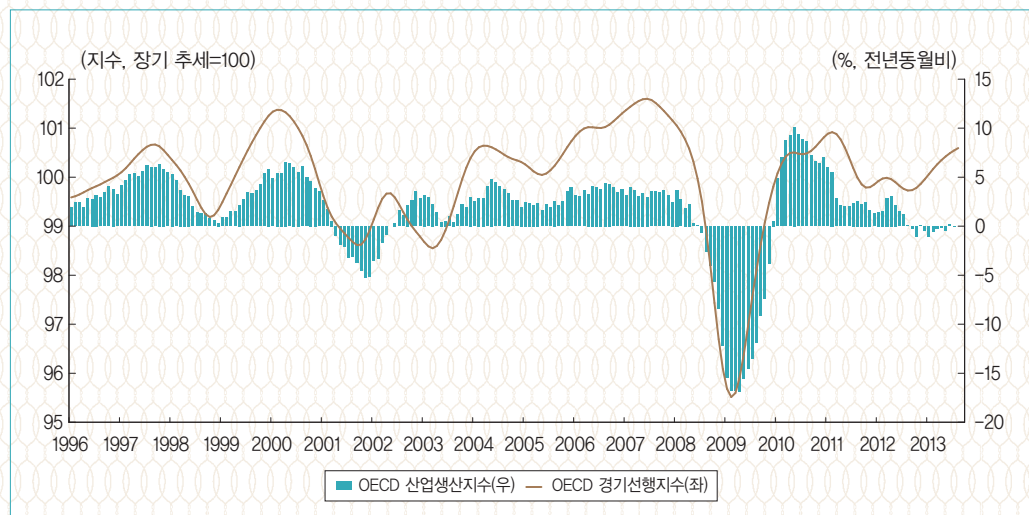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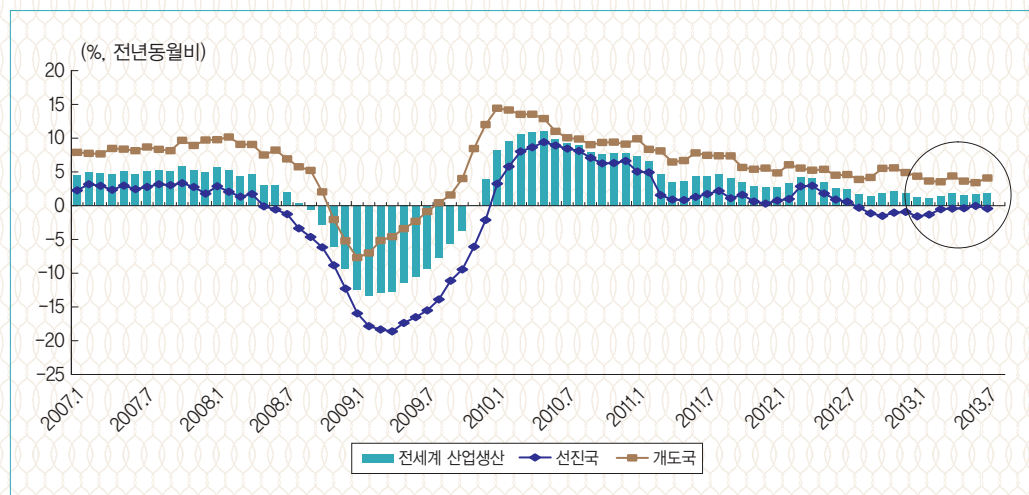
2. 대외여건 전망

세계경제 : 2014년 선진권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예상

2013년 세계경제는 선진권 경기의 미약한 반등과 개도권 경기의 둔화로 전년(3.2%)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 선진권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플러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회복 강도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며, 유로권은 이제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수준
- 개도권은 내·외수의 동반 약세로 실물경기의 부진이 뚜렷한 모습
- 산업생산 지표를 보면 선진권이 마이너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개도권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

그림 6 | 세계경제 관련 지표 추이



자료 : CPB, OECD.

표 1 |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2012					2013				2014 (f)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연간 (f)	
세 계					3.2				2.9	3.6
선진권	2.1	1.8	1.4	0.9	1.6	0.6	1.0	-	1.2	2.0
미 국	3.3 (3.7)	2.8 (1.2)	3.1 (2.8)	2.0 (0.1)	2.8	1.3 (1.1)	1.6 (2.5)	1.6 (2.8)	1.6	2.6
일 본	3.2	4.0	0.4	0.4	2.0	0.3	1.2	-	2.0	1.2
유 로	-0.1	-0.5	-0.7	-0.9	-0.6	-1.1	-0.7	-	-0.4	1.0
개도권					4.9				4.5	5.1
중 국	8.1	7.6	7.4	7.9	7.7	7.7	7.5	7.8	7.6	7.3
세계교역					2.7				2.9	4.9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3.10월) 등.

주 : () 안의 수치는 전기비 연율 기준임. ▲는 하향조정을 의미.

2014년 세계경제는 선진권에서의 정책기조 변화 영향과 개도권의 실물경기 부진 지속 여부가 주요 관심사인 가운데 성장률이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 미 연준(Fed)은 실물지표들의 추가적인 개선을 전제로 현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한다는 입장이며, 일본은 재정건전화로 위해서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
- 선진국들의 실물경기 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어 세계경제는 대체로 완만하고 더딘 회복세가 예상
- 중국을 비롯한 개도권은 현 실물경기의 부진이 좀 더 이어지면서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국제 유가 : 2013년 대비 보합 예상

올 들어 유가는 세계 실물경기의 약세와 증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축소된 변동 범위를 형성함.

- 수요 측면에서 연초 이후 세계 실물경기의 정체, 공급 측면에서는 시리아 등 정정 불안 확산을 배경으로 유가는 제한적인 등락
- 유가의 변동 범위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해 10월 현재까지 배럴당 96.7~113.6달러로서 2013년(89.2~124.2달러)에 비해서 다소 축소

2014년 유가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흐름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약화, OPEC의 산유량 조절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2013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서방-이란의 화해 여건 조성 등 지정학적 불안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점은 유가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

표 2 | 2013년 및 2014년 국제 유가 전망

단위 : 달러/배럴, %

전망기관	WTI		Brent		Dubai		3대 평균	
	EIA	PIRA	CGES	PIRA	CERA	PIRA	IMF	세계은행
전망시점	10월 8일	10월 4일	10월 21일	10월 4일	10월 4일	10월 4일	10월 9일	10월
2013년	98.7	100.6	109.5	109.8	104.8	106.6	105.0	105.0
2014년 (상승률)	96.2 (-2.5)	103.0 (2.5)	105.7 (-3.5)	109.3 (-0.4)	100.1 (-4.5)	107.1 (0.4)	104.5 (-3.0)	105.7 (0.7)

자료 : EIA; PIRA; CERA; CGES; IMF; World Bank.

- 다만 유가의 지나친 약세가 나타나는 경우, 전세계 원유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OPEC의 감산 등 유가 방어를 위한 산유국들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가능성도 존재
- 2014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2013년 평균가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연평균 약 105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환율 : 완만한 하락 예상

최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연기 등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국내 경상수지 흑자,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임.

2014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실한 국내 펀더멘털 등에 따라 하락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의 영향으로 환율 하락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3.2% 하락한 1,05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엔화는 통화팽창 정책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절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출구전략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경우 상대적 안전통화로 부각되면서 절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

그림 7 |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3. 2014년 국내경제 전망

2014년 GDP 성장률 : 연간 3.7% 전망

세계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감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2014년 국내경제는 장기추세성장률에 근접한 3.7%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회복세가 확산됨에 따라 수출과 내수 모두 비교적 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기간별로는 상·하반기 모두 비슷한 성장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나,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신흥국의 성장 둔화와 환율 하락으로 수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수출은 약 6.7%, 수입은 약 9% 증가하여 무역흑자는 328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10대 주력업종의 수출은 조선 수출의 감소세 전환, 철강 수출 부진 지속 등으로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낮은 5.1% 증가가 예상

내수는 교역조건 개선, 수출 회복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모두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억제요인으로 작용하나 유가 안정, 환율 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대 효과로 견실한 증가를 이어갈 전망
- 설비투자는 수출 회복과 그동안의 투자 부진에 대한 반등으로 비교적 활발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전체적으로 하방 위험요인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출구전략의 파급효과,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의 성장둔화 추이 등이 주요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 밖에 일본 소비세 인상의 여파, 유로권 경기추이 등도 주요 대외변수이며,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위험요인

민간소비 : 3%대 초반의 증가 예상

민간소비는 상반기 증가율이 1%대에 그치는 등 아직 대체로 부진한 편이나, 2013년 들어 완만하나마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이임.

재화별로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가 부진한 반면, 내구재 소비가 상반기 중 3.7%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임.

경기부진의 영향이 고용과 가계 및 임금 소득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민간소비를 위축시킴.

- 가계부채 문제, 수출경기 불확실성도 소비 억제요인으로 작용

실질 구매력은 교역조건 개선과 소비자물가 수준 안정 등으로 상반기 중 개선되거나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시현함.

2014년 민간소비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 유가 안정 및 환율 하락에 따른 구매력 개선으로 올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증가세 확대에 따른 소득 증가와 함께 교역조건도 개선 추이가 지속되면서 소비 여건이 양호해질 전망
- 가계부채 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은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연간 기준 3%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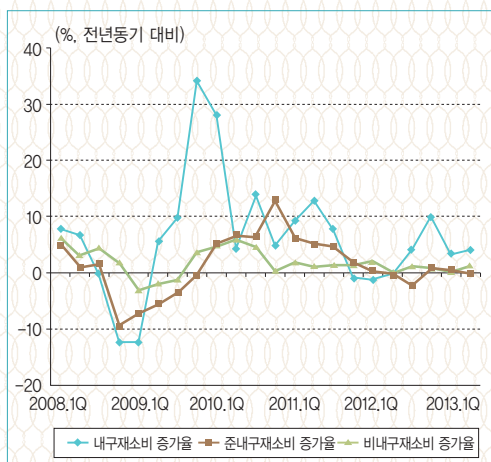
표 3 | 민간소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비, () 안은 전기비

	2012년					2013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민간소비	1.3 (0.8)	1.0 (0.4)	1.7 (0.7)	2.7 (0.8)	1.7	1.5 (-0.4)	1.8 (0.7)	2.2 (1.1)
소매판매액지수	2.8 (1.0)	1.4 (0.3)	2.6 (1.2)	2.5 (0.4)	2.3	0.2 (-1.2)	1.1 (0.4)	0.6 (1.2)
실질GNI	2.3 (-0.1)	2.7 (1.5)	2.9 (0.7)	2.4 (0.3)	2.6	3.5 (0.8)	4.7 (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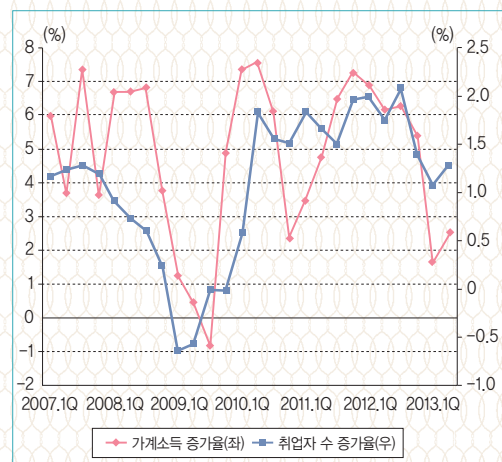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8 | 재화별 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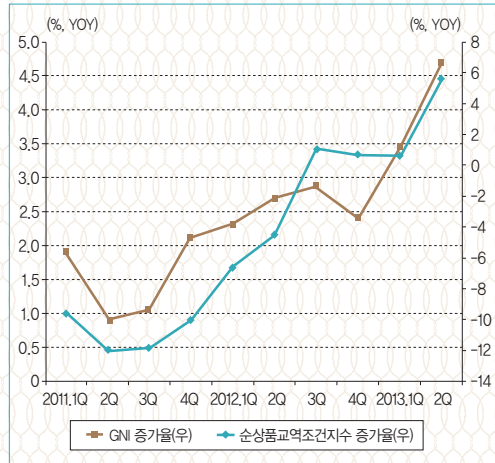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9 | 가계소득 및 고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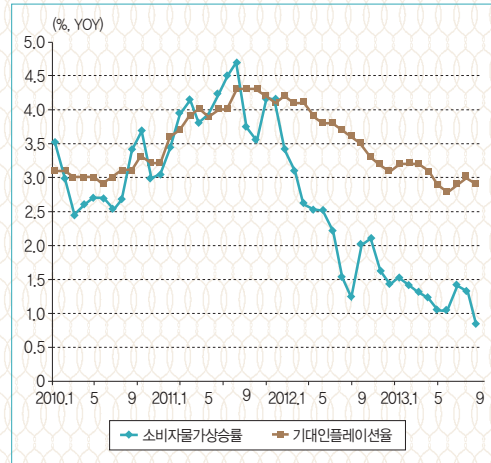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10 | GNI와 교역조건지수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1 |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설비투자 : IT제조업 주도로 5% 중반 증가 예상

그동안 부진이 이어지던 설비투자는 2013년 3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고 선행지표도 증가추이를 이어가는 등 회복 조짐을 보임.

- 설비투자는 금년 들어 2분기 연속 감소하다 3/4분기에 1.8%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계절조정 시계열 전기비 증감률도 1.2% 증가
-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 수주는 금년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

주체별로는 민간부문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부문이 증가하였고, 형태별로는 기계류 투자가 감소한 반면, 운송장비 투자는 증가함.

업종별로는 정밀기기,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의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4 |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비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국내기계수주 (불변, 선박 제외)	-3.6	-34.1	13.4	-0.3	16.3	10.4	5.7	6.4
공공	169.8	-75.8	92.2	63.8	542.9	11.5	15.8	-52.0
민간	-8.3	-18.4	10.6	-2.4	4.8	10.3	3.6	13.7
설비투자조정압력	6.9	-10.9	-4.1	0.4	-2.7	-3.8	-0.7	2.0

자료 : 통계청.

2014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저 효과 등에 힘입어 비교적 활발한 증가세를 보이며 연간 5%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 회복기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완화, 수출과 소비의 회복세, 그동안의 투자 부진에 따른 반등 효과 등이 설비투자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IT업종에서 투자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

건설투자 : 전년보다 낮은 2% 초반 증가 예상

건설투자는 최근 몇 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

- 형태별로는 아파트 분양이 호조를 보이면서 주거용 건물 건설이 전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고, 주체별로는 민간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양상

2014년 건설투자는 SOC 예산 축소 및 수주부진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연간 2% 초반대의 증가가 예상됨.

-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 중
- 정부 SOC 예산은 2013년 25조원에서 2014년 23조원으로 축소 전망

가계부채 문제, 미분양 물량 적체, 건설사 부실 문제 등 최근 몇 년간 건설투자 부진을 초래한 구조적 요인도 건설투자 증가세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됨.

표 5 | 건설투자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 전년동분기비

		2012	2013		
		연간	1/4	2/4	3/4
건설투자		-2.2	2.4 (4.1)	7.2 (3.4)	8.0 (2.7)
주체별	민간	-1.3	8.4 (13.0)	8.4 (-0.5)	-
	정부	-4.5	-19.3 (-20.0)	4.0 (18.7)	-
형태별	건물	-1.7	1.9 (4.6)	8.3 (3.7)	-
	주거용	-5.7	7.5 (13.9)	19.3 (2.8)	-
	비주거용	0.3	-1.2 (0.0)	3.2 (4.1)	-
	토목	-2.9	3.1 (3.5)	5.8 (3.1)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수출입 : 2014년 수출 6.7%, 수입 9.0% 증가 예상

수출은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들어 10월까지 전년동기비 1.9% 증가한 반면, 수입은 내수부진 및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1.2% 감소함.

-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수입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1~10월 중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이미 작년 수준을 훨씬 상회한 359억 달러를 기록

품목별로는,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중 부진하였던 자동차와 선박의 수출도 하반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됨.

지역별로는, 하반기 들어 미국과 EU 등 대선진국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개도국 수출도 중국과 중남미를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 반면, 엔저로 인해 대일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안정으로 대중동 수출도 올 들어 크게 감소

수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소비재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감소함.

미국과 EU 등 선진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추세에 힘입어 2013년 연간 수출증가율은 2.6%, 수입증가율은 0.1%,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42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14년에는 완만한 원화절상과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나,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대중국 중간재 수출 확대,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6.7%로 높아질 전망이다.

표 6 |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2		2013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0월
수출	5,479 (-1.3)	1,398 (-0.4)	1353 (0.4)	1412 (0.7)	1368 (2.8)	463 (7.6)	447 (-1.5)	505 (7.3)	4,639 (1.9)
수입	5,196 (-0.9)	1,298 (-1.0)	1297 (-3.0)	1268 (-2.7)	1258 (0.1)	415 (0.9)	410 (-3.6)	456 (5.1)	4,280 (-1.2)
무역수지	283	99	57	143	110	48	37	49	35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 10월 실적은 잠정치.

- 세계교역 규모가 확대되는 등 수출여건은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나, 수출비중이 높은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큰 폭의 수출증가율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품목별로는 선진국 수요 의존도가 높은 IT제품과 자동차 등의 수출이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원화환율 하락은 수출증가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나 하락폭이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석유제품·반도체·선박류 등 환율 영향이 작은 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아져 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2014년 수입은 수출증가에 따른 수출용 중간재 및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재·자본재 수입 확대로 9.0%의 증가가 예상됨.

2014년 무역수지는 수입 확대로 전년보다 흑자폭이 다소 줄어든 328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7 |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자료 :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1.9 (1.0)	3.6 (1.0)	2.8	3.7 (1.1)	3.6 (0.8)	3.7
민간소비	1.6	2.4	2.0	3.4	3.2	3.3
건설투자	5.2	6.5	5.9	2.9	1.8	2.3
설비투자	-8.2	4.0	-2.4	6.5	4.5	5.5
통관 수출 (억 달러, %)	2,765 (0.6)	2,858 (4.7)	5,624 (2.6)	2,945 (6.5)	3,053 (6.8)	5,998 (6.7)
통관 수입 (억 달러, %)	2,566 (-2.9)	2,635 (3.1)	5,200 (0.1)	2,791 (8.8)	2,879 (9.3)	5,670 (9.0)
무역수지	200	224	423	154	174	328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주 : < > 안은 전기 대비 분기증가율의 반기 평균.

동향분석실(dygang@kiet.re.kr, 3299-3205)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김도훈 / 편집인 유진근 / 편집·교정 조계환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Tel : 3299-3114 Fax : 963-8540 www.kiet.re.kr